심판 14명 뿐인 KBL…예고된 파행



최용석의 팁인

심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남자농구
징계 심판, 출장정지 줄이고 제재금↑
주심급 심판은 매일 경기…부담 가중



시즌 개막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심판 부족 문제가 결국 탈을 불렀다. KBL 경기본부는 14명(정식 13명·객원 1명)으로 심판진을 꾸렸다. 하루에 5경기가 열리는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를 수도 없는 숫자다. 사진제공 | KBL

'2016~2017 KCC 프로농구' 개막부터 심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심판의 자질을 떠나 14명(정식 13명·객원 1명)으로 시작한 만큼 '온전하게 시즌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을 샀다. 정규리그 최종 5경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린다. 14명은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를 수도 없는 숫자다. 게다가 시즌 도중 판정 문제로 징계를 받는 심판이 나오면 가용인원은 줄어든다. 이 경우 몇몇 심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그나마 얼마 없는 베테랑 심판 4명이 KBL을 떠났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KBL 경기본부는 14명으로 새 시즌에 돌입했다.

결국 탈이 났다. KBL은 25일 심판 6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19일 KCC-KGC전, 22일 kt-모비스전에서 똑같은 룰을 잘못 적용한 심판 6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경기별 심판 1명씩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나머지 심판 4명에게 각각 1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6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KBL은 한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였다. KBL은 "재정위원회는 경기 출장정지보다 제재금 위주로 심판들을 징계한 배경으로, 심판부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정 문제를 일으킨 심판들의 경우 일정 기간 배정을 정지하고 재교육 후 다시 경기에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부족한 심판수를 고려해 제재금을 더 내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 심판들의 코트 복귀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일 경기로 징계를 받은 심판 3명 중 2명은 25일 복귀했다. 이 중 한 명은 25일, 26일, 27일 경기에 잇달아 투입됐다. 이를 바라본 현장 지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22일 경기로 징계를 받은 심판 3명 중 1명은 27일 경기에 주심을 맡았다.

그런데 22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경기들에 배정된 심판을 살펴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주심급 심판 2명이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심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도 제대로 줄 수 없고,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판을 담당하는 KBL 이재민 경기본부장은 "개인 특성까지 고려한 징계 결정이었고, 징계기간을 마친 뒤 경기에 배정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농구를 관장할 심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14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부를 개혁하는 과정이어서 지금처럼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심판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 감독들에게도 이런 점을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다. 우리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KBL 경기본부가 갖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현장 지도자들과 선수들, 팬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 문제다.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면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KBL 경기본부는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통'이라고 지적하는 시각이 많은 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스포츠1부 기자 gtyong@donga.com



삼성생명 나타샤 하워드(33번)가 28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어진 신한은행과의 홈경기 도중 김단비의 수비를 뚫고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하워드 24점·14R…삼성생명 5할승률 복귀

꽁꽁 묶인 김단비 7점…신한 4연패

삼성생명이 모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며 5할 승률에 복귀했다.

삼성생명은 28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어진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 신한은행과의 홈경기에서 나타샤 하워드의 24점·14리바운드 활약을 앞세워 71-61로 이겼다. 2연패에서 벗어난 삼성생명은 5승5패로 단독 2위가 됐다. 반면 최하위 신한은행(2승7패)은 4연패에 빠졌다.

삼성생명의 공격이 폭발했다. 1쿼터 종료 6분4초를 남기고 10-13으로 뒤지던 삼성생명은 최희진의 3점슛 2개와 하워드, 고아라의 연속 득점을 묶어 21-15로 전세를 뒤집은 채 1쿼터를 마쳤다. 삼성생명은 전반에 일찌감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하워드(16점), 최희진(14점), 고아라(10점)의 활약 덕분에 47-29로 크게 앞섰다. 삼성생명은 경기 종료 2분24초를 남기고 알렉시즈 바이올레타마와 김연주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한 신한은행에 4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다시 하워드와 배혜윤의 득점으로 승리를 완성했다.

삼성생명 승리의 밑바탕에는 탄탄한 수비도 있었다. 삼성생명은 경기 내내 신한은행 에이스 김단비를 스위치 수비로 철저히 틀어막았다. 1라운드 신한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 김단비에게만 28점을 내주며 패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단비와의 매치업은 고아라가 맡았지만, 상황에 따라 하워드가 김단비를 방어하며 강력히 견제했다. 김단비는 33분41초를 뛰며 7점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알렉시즈가 25점·12리바운드, 김연주가 21점·7리바운드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해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용인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라운드 '홈승률 71%' 미스터리

남자농구 역대 최고의 홈승률
홈 어드밴티지 존재 여부 의심

'2016~2017 KCC 프로농구'는 2라운드가 한창인 28일 현재 모두 66경기를 치렀다. 66경기 중 41경기에서 홈팀이 승리해 리그 전체의 홈 승률은 62.1%다. 그런데 1라운드에선 홈 승률이 무려 71.1%였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홈 승률에 현장 지도자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8일 전격적으로 10개 구단 감독들이 서울 강남구 KBL 센터를 찾아 KBL 이성훈 사무총장, 이재민 경기본부장과 회의를 한 이유다.

삼성, 오리온, 전자랜드는 1라운드 홈 승률 100%를 찍었다. 동부는 83%였고, LG와 KGC는 나란히 75%였다. SK는 1라운드 홈 5경기 중 3경기에서 이겨 승률이 60%였는데, 홈 승률이 좋았던 7개 팀들 중에선 가장 낮았다. 1라운드 홈 승률이 50% 미만인 구단은 3개 팀이었다. 부상으로 주축선수들을 잃은 KCC가 20%로 가장 낮았다. KCC처럼 부상선수가 다수 발생한 모비스와 kt는 나란히 33%에 머물렀다.

비단 올 시즌만이 아니다.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의 홈 승률은 60%였다. 이는 남자프로농구 창립 이후 2번째로 높은 홈 승률이었다. 역대 최고는 리그 초창기인 1997시즌의 67.9%였다. 당시에는 팀당 경기수가 현재의 절반보다 적은 21경기였다.

지난 시즌 라운드별 홈 승률을 살펴보면, 대표팀 차출과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선수들의 제외 때문인지 1라운드 홈 승률은 46.7%에 그쳤다. 그런데 2라운드부터 높아졌다. 2라운드 68.8%, 3라운드 62.2%를 보였다. 결국 시즌 전체 홈 승률은 60%로 끝났다.

최근 KBL의 홈 승률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팀별 홈 승률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팀당 54경기 체제가 구축된 2001~2002시즌 이후 2015~2016시즌을 제외하고 홈 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5~2006시즌으로 57.8%였다. 당시 팀별 홈 승률을 보면 70%를 넘은 팀이 3개였다. 60%대가 1개, 50%대가 3개였다. 그런데 2015~2016시즌 팀별 홈 승률을 보면 70% 이상인 팀이 5개나 된다. 50%대가 2개고, 가장 낮은 팀이 33%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일부 팀들의 홈과 원정 승률의 편차가 매우 크다. 다른 시즌 기록들을 보면 홈 승률이 70%가 넘는 팀들의 원정 승률은 모두 50% 이상이고, 그 편차도 크지 않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홈 어드밴티지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졌다. 그러나 KBL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용석 기자

'사이클 4관왕' 황소진 잠재력 깨운 스포츠과학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스포츠과학, 지역밀착 시대를 열다 **2 사이클 영재 발굴한 광주스포츠과학센터**

사이클 두각…밀착지원 대상자 선발
체력·심리·기술 등 체계적으로 훈련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휩쓸어

현대스포츠에서 스포츠과학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은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6개의 지역스포츠과학센터(서울·대전·대구·광주·경기·전북)를 운영 중이며, 201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 구축할 계획이다.

●스포츠영재 발굴, 현장에 답이 있다!

2014년 9월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육상대회에서 입상한 여중생이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선수는 한 지도자의 눈에 들어 육상유망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이클스타로 성장 중이다. 광주체중 황소진 선수다. 황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합기도 및 스노보드를 즐기고, 육상대회에서도 입상한 스포츠영재다. 광주체중 김선주 감독은 "만약 2014년 전남도교육감기 육상대회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황소진 선수를 발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포츠영재 발굴에는 현장지도자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스포츠영재 발굴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스포츠영재 발굴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중부신기록 넘어 한국신기록으로!

황소진 선수는 사이클선수로 출전한 첫 전국대회(제32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경기대회)에서 여중부 단체스프린트 및 단체추발 2km 우승을 차지했다. 또 사이클 입문 3개월 만에 출전한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500m 독주·2km 단체추발)와 은메달 2개(1km 개인추발·단체스프린트)를 획득하고, 2015년 제15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는 등 혜성처럼 사이클유망주로 등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m 기록경기에서 9년 만에 여중부최고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광주스포츠과학센터는 2015년 9월 개소 이후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를 열어 황 선수를 밀착지원 대상자로 선발했다. 밀착지원은 운동생리학(체력), 스포츠심리학(심리), 운동역학(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센터 연구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스포츠과학 지원을 말한다. 이런 지원을 통해 황 선수가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사이클 4관왕(200m 기록경기·500m 독주·2km 단체추발·단체스프린트)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황 선수는 체육우수영재로 선발돼 스위스에서 훈련 중이다.

●광주스포츠과학센터의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과학 분석 결과, 황소진 선수는 먼저 체격요인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0cm·53kg의 다부진 체격에 제지방율은 높고 체지방율은 매우 낮다. 체력요인에서 근력, 근지구력, 근파워, 민첩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및 협응력이 우수해 단거리 및 중장거리에도 통할 수 있다. 또 전문체력의 경우 평균파워가 우수하고, 경기력 분석 결과 균형감각이 탁월하다. 사이클 종목에서 중요한 기술인 조정술과 회전력(코너에서 속도가 줄지 않게 페달을 돌리는 것)도 뛰어나다. 트랙 한 바퀴를 26초 만에 돌파할 정도로 힘과 순발력이 좋은데, 고등부에서도 통하는 기록이다. 경기운영능력 향상과 스포츠과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등속성 각근력 및 요부 신전력 강화, 체계적 심리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트랙 한 바퀴를 25초대로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센터장

스포츠동아·KISS 공동기획



광주체중 사이클선수들의 경기 장면. 광주스포츠과학센터는 운동생리학(체력), 스포츠심리학(심리), 운동역학(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센터 연구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스포츠과학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체중 사이클선수 황소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합기도 및 스노보드를 즐기고 육상대회에서도 입상한 스포츠영재다. 사진제공 | 광주스포츠과학센터